

## 한국어 교재 개발의 실제\*

- 동국대학교 중급교재를 중심으로 -

최은경 · 이인희 · 김진영\*\*

### || 차례 ||

1. 서론
2. 교재 개발의 절차
3. 연구 단계
4. 집필 단계
5. 출판 단계
6.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중급교재 개발 과정의 실재를 공유함으로써 이제 막 교재를 개발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한국어교육 연구자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목적과 교육 현장의 상황에 맞게 개발된다. 한국어교육계에서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교재의 역할과 비중이 큰 것은 물론이고 이들 교재는 몇 년을 주기로 개정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주요기관의 교재 개발의 경험과 노하우는 타 기관의 교재 개발에 참고가 된다. 동국대학교에서는 기존 중급교재의 내용 대부분을 수정하여 새롭게 중급교재를 출간하였다. 교재 개발의 절차는 작업 내용의 성격과 해당 단계의 결과물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 단계 → 집필 단계 → 출판 단계’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현장의 교육 상황을 반영한 한국어 교재 개발 과정을 공유 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론적 접근보다는 실제로 교재 개발이 이루어지는 각 단계의 작업 상황을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이 연구가 교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제25차 춘계학술발표대회(2018년 5월 19일, 베트남 하노이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최은경(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 부주임, ekchoi@dongguk.edu).  
이인희(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 부주임).  
김진영(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 급대표).

**주제어:** 한국어 교재, 교재 개발, 한국어교육, 중급교재, 연구 단계, 집필 단계, 출판 단계

## 1. 서론

한국어교육은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재 개발은 기관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이루어진다. 또한 한국어 교재 개발은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에 부합하는 학습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재 역시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철학에 맞게 학습자들을 위한 교재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기관의 교재는 단독 저자가 아닌 복수 저자로 구성된 집필진의 공동 작업으로 교재 개발이 이루어진다. 어느 우수한 한 개인이 교재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개발한 교재를 기관의 주교재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둘째, 일정 기간마다 교재를 수정·보완하여 개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한국어 교재는 이론을 다루는 교재와 달리 현장의 교육 상황이 변화하는 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교재 개발 후에도 해당 기관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교재가 집필진의 의도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은 2016년 12월 기준 220개이다.<sup>1)</sup> 그중 한국어교육 정규과정 1급부터 6급까지 출간된 통합 교재는 총 10여 종에 불과하다.<sup>2)</sup> 초급 교재만 개발하고 중급이나 고급 교재를 개발하지 못한 기관도 상당수이다. 이것은 초급 교재 개발이 교재 개발의 첫 단계이기도 하지만, 초급 학습자 수가 가장 많은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교재 개발 작업이 노력과 시간은 물론 현실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은 중·고급 교재까지 출판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다. 교육기관이 설립 초기이거나 소규모인 경우에는 타 대학 교육기관의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1) 이정란 외(2016: 9).

2) 이해영 외(2017: 75).

일반적이지만 규모가 양적으로 커지게 되면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철학과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교재 개발을 하게 마련이다.

한국어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는 교재 개발의 원리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특정 항목을 중심으로 한 교재 개발 연구, 언어권별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 연구, 특정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 연구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교재 개발 관련 연구 중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주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연세대학교 교재, 가톨릭대학교 교재, 경희대학교 교재의 개발 관련 연구물 정도가 있다.<sup>3)</sup>

한국어교육계에서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교재의 역할과 비중이 큰 것은 물론이고 이들 교재는 몇 년을 주기로 개정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주요기관의 교재 개발의 경험과 노하우는 타 기관의 교재 개발에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된다. 동국대학교에서는 기존 중급교재의 내용 대부분을 수정하여 새롭게 중급교재를 출간하였다. 중급교재 개발 과정의 실재를 공유함으로써 이제 막 교재를 개발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한국어교육 연구자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교재 개발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은 기존 연구물에서도 충분히 언급되었던 것이라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생략한다. 이것은 실제 교재 개발의 내용을 충분히 신기 위함이다.

## 2. 교재 개발의 절차

교재 개발의 절차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것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 연세대학교 교재로 한송화(2003), 황인교(2005), 박지영(2008), 조항록(2013) 등이 있고, 가톨릭대학교 교재로 박선옥(2011), 경희대학교 교재로 이정희(2016)가 있다. 참고 문헌 참조.

표 1 교재 개발의 절차

연구물	교재 개발의 절차
조항록(2003)	학습자 요구 분석 → 교수목표, 교육과정, 교수요목의 설정 → 단원의 구성 → 교재 내용의 구체화 → 시험적 사용과 수정, 보완
황인교(2005)	개발 전 단계 → 개발 단계 → 시험 사용 단계 → 완성 단계
박지영(2008)	개발 전 단계 → 개발 단계
박선옥(2011)	연구 기획 단계 → 개발 기초 단계 → 개발 실제 단계 → 시험 사용 단계
최권진(2017)	기획 → 준비 → 집필 → 시험 사용 → 완성
서종학·이미향·박진옥(2017)	요구 조사 → 설계 → 단원 구성 및 집필 → 시험 사용 → 완성

교재 개발의 첫 단계에서는 교재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교재를 개발할지에 대해 방향을 설정해야 하므로 학습자 요구 분석과 기존 교재의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작업을 거친 후에 향후 작업의 세부 일정을 수립하게 된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집필과정이 있고 집필 중인 교재를 시험 사용하면서 수정·보완하는 단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완성되면 출판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표 1>에 제시된 각 연구의 용어나 구분은 다르나 각 단계의 흐름은 다르지 않다. 다만, 연구자마다 교재 집필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누어 구분한 것을 다른 점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연구에서는 교재 개발의 절차를 작업 내용의 성격과 해당 단계의 결과물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 단계 → 집필 단계 → 출판 단계’로 진행하였다.<sup>4)</sup>

4) 심사의견 중 서종학 외(2017)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원리를 따르지 않은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작업 내용의 성격과 해당 단계의 결과물’을 기준으로 삼았다. <표 2>와 3장에서 기술하였다. 요구조사는 ‘연구 단계’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이번 동국대학교 중급교재 개발의 경우에는 사전 요구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미 해당 기관에서 기존 교재를 다년간 사용하며 발견된 개선 방향을 토대로 교재 개발이 기획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요구 조사가 불필요하였다. 기존 교재의 면밀한 문제점 분석은 ‘연구 단계’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연구의 3장에서 제시

일반적으로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의 교재 개발은 교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 후에 교재 집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교재 개발을 진행할지와 관련된 논의는 생략하고 교재 개발이 결정된 이후의 본 작업부터 교재 개발의 절차로 삼았다. 교재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교재 개발 기간과 집필진, 그리고 비용 등 실제적인 사항들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국대학교 중급교재 개발은 2016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18년 2월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고 2018년 3월 초 출간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2016년 9월 이전에 집필진이 구성되었으며 집필비를 비롯하여 회의비, 삽화 및 이미지 작업 비용 등 실제적인 사항들도 논의를 마친 후 진행하였다.<sup>5)</sup> 전체 일정은 <표 2>와 같다.

표 2 중급교재 연구 개발 일정

구분	기간	내용	비고
연구 단계	2016년 가을학기	- 기존 중급교재의 교재구성 및 문제점 분석 - 타 기관 중급교재 분석 및 연구물 검토	- 3, 4급 공동 작업 - 각자 작업 후 회의
	2016년 겨울학기	- 동국대 초급 교재의 집필 취지 공유 및 내용 검토, 중급 교재의 방향 설정 - 중급 교재의 문법항목 및 주제 선정, 단원구성	- 3, 4급 공동 작업 - 2차 집필진(4명) 연수
집필 단계	2017년 봄학기	- 3급 1차본 집필 - 4급 1차본 집필	- 집필위원 4명 추가 (~2017년 가을학기)
	2017년 여름학기	- 3급 2차본 집필(1차본 수정/보완) - 4급 2차본 집필(1차본 수정/보완)	- 1차본 사용
	2017년 가을학기	- 3급 3차본 집필(삽화/이미지 추가) - 4급 3차본 집필(삽화/이미지 추가)	- 2차본 사용 - 삽화가, 편집디자인

하였다. 교재를 사용할 교사와 학습자의 추가 의견 및 요구사항은 '집필 단계'의 1, 2, 3차본을 시험 사용하는 과정에서 반영하였다.

5) 저작권은 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에, 출판권은 동국대학교 출판부에 있다. 삽화와 이미지 작업의 대략적인 비용은 기획 시 예상한 바는 있으나 집필 작업을 진행하면서 삽화나 이미지 개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집필 작업을 진행하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온 후 확정하기로 했다.

		공동 작업 - 이미지 구입 사용
출판 단계	2017년 겨울학기	- 3, 4급 출판본 작업 및 교정 - 앞부속, 뒷부속 작업 <sup>6)</sup> , 표지 작업 - 듣기 지문 녹음
	2018년 봄학기 개강 시점에 3, 4급 교재 출간	

연구 단계와 출판 단계에서는 집필 총괄 한 명을 포함하여 3급 전문가 두 명과 4급 전문가 두 명으로 집필진을 구성하였다. 3급과 4급을 연계하여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담당은 구분되어 있으나 연구와 출판 작업은 집필진 전원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집필 단계에서는 3급과 4급을 분리하여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집필 총괄은 3급과 4급을 아우르고 3급 집필진과 4급 집필진은 각각 집필 작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3급과 4급에 각각 두 명씩 집필진이 추가되었다. 즉, 연구 단계와 집필 단계에서는 전체 집필진 5명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하고 집필 단계에서는 3급과 4급이 각각 5명씩의 집필진으로 진행하였다.

### 3. 연구 단계

연구 단계는 전체 교재 개발 단계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교재의 전체적인 틀이 구성되는 것은 물론 집필을 위한 세부 항목인 단원 구성과 각 단원의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교재 개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연구 단계에서 진행된 주요 작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3.1. 기존 교재의 문제점 분석

6) 앞부속은 판본페이지, 머리말, 일러두기, 차례, 교재구성표 등이며, 뒷부속은 듣기 지문, 모범답안, 찾아보기(어휘 목록) 등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기존 교재가 있었으나 사용자인 교사와 학습자 모두 새 교재의 필요성을 이미 공유하고 있어서 새 중급 교재 개발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실제 수업에서는 기존 교재의 많은 부분을 연습지나 다른 자료를 추가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교재는 해당 일의 교수 항목 및 내용을 표시하는 수준의 역할만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필요했다. 즉, 기존 교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현재 수업에서 개선안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새 교재에 담아내는 작업을 시작으로 기존 교재의 분석이 진행되었다.

#### ① 과제 활동

과제 활동 중심의 교재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다양한 과제 활동이 제시되었으나 일부 활동은 그 제시가 분명하지 않거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활동의 진행을 어떤 규모로 하는지에 따라 ‘전체 활동, 모둠 활동, 짝 활동, 활동’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활동은 그 구분에 맞지 않았다. 또한 제시된 과제 활동을 수행하기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사전 활동 및 피드백 과정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과제 활동은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실제와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구현하여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실제성을 갖춘 것이어야 하고 진행 단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② 도입

도입을 통해 그 단원의 주제에 맞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도입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정도의 분량인 경우가 많았다. 도입은 몇 개의 간단한 질문을 통해 각 과에서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정도로 구성해야 한다. 도입은 그 단원의 주제를 소개하고 학습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정도의 그야말로 도입다운 도입으로 가벼워질 필요가 있다.

#### ③ 주제

비슷한 주제가 중복되어 제시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결혼’과 관련된 내용이 지나치게 많았고 결혼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결혼이라는 주제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학습자

가 많았다. 또한 하나의 주제 안에서 제시되었지만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들이 전개되는 경우도 있었고, 학습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주제가 제시되어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급 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를 엄선하되 학습자의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④ 구어와 문어, 격식체와 비격식체

각과 본문에 1~2개의 문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문법을 포함한 대화를 각각 따로 제시함으로써 해당 문법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학습자가 구어와 문어 상황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본문을 제시해야 하는데 구어성이 적은 문법의 경우에도 비격식 대화체인 ‘-아요/어요’를 사용하여 대화를 제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활동’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빈번히 나타난다.<sup>7)</sup> 문법과 어휘는 구어와 문어,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구분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 ⑤ 예문

문법의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나야 하는 대표 예문이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3급 과정을 시작하면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간접화법의 경우 구어와 문어를 구별해 주지 않아 2급 과정에 있는 간접화법 축약형과의 차이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문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개일 때는 대표 예문에서 그 의미를 우선 전달해야 하는데 대표 예문에 제시되지 않은 의미가 활동에 새롭게 제시되어 교수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학습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미의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 예문과 활동에 여러 개의 의미를 따로 제시하고 있어 의미를 모두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목표 문형과 예문은 학습자 수준에 맞게 제시되어야 한다.

#### ⑥ 본문과 문법 제시

본문이 대화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하기 연습을 위한 것인지 의미를 제시하기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이 불분명했다. 실제성을 반영한 대화라기 보다는 해당 문법을 무리하게 사용하여 지나치게 길어진 문장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본문이 ‘말하기’를 위한 자료가 아니라 ‘읽기’를 위한 자료로 사용되기

7) 기존 교재는 2009년에 개발된 것이어서 그 당시 다른 한국어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구어와 문어, 격식체와 비격식체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십상이었다. 문법과 표현을 포함한 본문을 제시할 때는 대화, 발표문, 산문 등 실제성을 반영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본문의 대화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화용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맥락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같은 문법이 주변 표현만 바뀌 반복 제시되는 경우(예. -는지 않다, -는지 알아보다, -는지 안 -는지)도 있었다.

같은 의미 범주 안에 있는 문법들이 여러 개 제시되어 학습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추가의 의미를 가진 ‘-(으)ㄴ 뿐만 아니라’, ‘-에다가’, ‘-은/는 물론이’ 3급에서 모두 제시되어 있는데 의미나 쓰임의 차이를 변별해 주지 못한 채 제시되어 학습을 어렵게 하였다. 특히, ‘-(으)ㄴ 뿐만 아니라’와 ‘-에다가’는 같은 과에 나란히 제시되어 의미 차이를 교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빈도가 높은 문법은 누락되고 빈도가 낮은 문법이 제시된 경우도 있었다. ‘-(으)ㄴ가/나 보다’는 누락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은 ‘-(으)ㄴ/는 모양이다’는 제시되어 있었다. 누락된 문법 항목이 텍스트에 제시된 경우도 많았다. ‘-(으)ㄴ가/나 보다’, ‘-기 때문에’, ‘-기 위해서’, ‘-아야겠다/어야겠다’ 등은 텍스트에 제시되었으나 문법 항목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이들 문법은 신규 문법이지만 텍스트에 포함하여 교수하였는데 교재에 정규 문법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 ⑦ 문법 제시의 급간 연계

간접화법의 경우, 2급 새 교재에서 간접화법 축약형을 단계적으로 학습하고 3급 1과에서 간접화법의 기본형을 학습하였다. 그런데 3급 14과에서 간접화법 축약형이 다시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급 새 교재에서 2급과 연계하여 문법 항목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3급과 4급에서 형태가 같은 문법 항목(예. 3급: -(으)ㄴ/는 대로, 4급: -는 대로)이 제시되거나 같은 의미 범주 안에 있는 문법 항목(예. 3급: -아/어 두다, 4급: -아/어 놓다)을 변별하기 어렵게 그대로 제시한 경우가 있어 이들 문법 항목을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 ⑧ 텍스트의 난이도

문법을 제시해 주는 본문의 길이는 짧은 데 반해 듣기와 읽기의 길이는 지나치게 길었다. 특히 읽기는 길이뿐만 아니라 내용의 난도도 본문보다 높아 각 과

의 마지막 부분에서 해당 과의 목표가 흐려지기도 했다. 읽기의 난이도도 과마다 달라 어느 과에서는 온돌 문화, 삼림욕 등 생소한 주제로 읽기 텍스트가 제시되고 어느 과에서는 메모, 일기, 편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텍스트가 제시되는 등 텍스트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텍스트가 제시되는 것은 좋지만 길이와 난이도가 다른 텍스트가 계획되지 않은 순서로 제시된다면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

#### ⑨ 맥락이 부족한 대화

4급에서는 대화 상대자가 설정되어 있어 담화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적절한 어미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자 스스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3급에서는 ‘본문’이나 문법을 위한 대화를 제시할 때 대화 상대자를 단순히 ‘가’와 ‘나’로만 나타내어 담화맥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학습자가 대화를 읽을 때 대화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 ⑩ 단원 수

15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교사가 실제 수업을 운영할 때 학습자가 예습·복습을 할 때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기존 교재가 출판된 시기에는 15개 단원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15개 정도의 주제로 세분화하는 것이 교재를 구성하는 데에 수월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1학기가 10주이고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단원 수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양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루 4시간 수업이 한 단위가 되도록 시각적으로도 구분되는 것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친절한 교재일 것이다.

#### ⑪ 문법과 어휘의 구분

문법을 ‘표현’이라는 용어로 제시하고 별도로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중급에서 다양한 어휘를 가능한 많이 효율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좋으나 제시된 어휘의 성격을 보면 문법으로 볼 수 있는 것들과 어휘장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섞여 있었다. 문법과 어휘의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

#### ⑫ ‘활동’과 ‘과제’의 구분

3급은 교재 구성표에서는 ‘과제’와 ‘과제활동’으로, 각 단원 안에서는 ‘활동’으로 제목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었고, 4급도 마찬가지로 교재 구성표에서는 ‘과제’

와 ‘과제활동’으로, 단원에서는 ‘활동’과 ‘과제’로 서로 다른 제목을 달아 달리 제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제목이 상이한 것과는 다르게 그 내용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좀더 구체적인 진행 방법이 제시되거나 제목이 바뀌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교재에서 활동, 과제, 과제활동 등의 용어를 모두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해야 한다.

#### ⑬ 교재 구성표

교재 구성표에 ‘과제’로 번호가 매겨져 그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당 단원의 활동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모호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교재 구성표 아래에 제시된 ‘과제 활동’ 두 가지는 어느 과를 수업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제시된 것인지도 명시되어야 했다. 본 단원과 구별되는 과제활동이나 추가 활동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 ⑭ 쓰기

중급 수준의 ‘쓰기’ 활동이 거의 없었다. 기존 교재 집필 당시에 말하기 능력 향상에 치중하여 집필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말하기 활동, 듣기 활동, 읽기 활동 등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쓰기는 있으나 중급 수준의 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과 연습이 매우 부족했다.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중급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쓰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중급 수준의 ‘쓰기’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⑮ 새 단어의 제시 방법

학습자가 예습과 복습을 하기에 더 수월한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본문 뒤에 있는 ‘모둠 활동’에 나온 새 단어는 ‘문법’이라는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었고, 실제 단원에는 ‘문법’이라는 제목의 쪽지가 없었다. 한꺼번에 제시하려면 구분하는 항목의 제목을 동일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고 새로 개발된 초급 교재와 마찬가지로 해당 페이지에 각주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세부 사항을 토대로 전체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요약해 보면, 첫째, 과제 중심의 교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과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하나의 주제 안에 문법과 어휘들이 제시되지 않아 문법과 어휘가 어울리는 적절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지 못하게 되고 그 문법을 배워야 하는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였다. 셋째, 특정 주제에 편중된 경향이 있어 학습자의 흥미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 학습을 저해하고 있었다. 넷째, 문법이나 예문 제시에 있어 구어와 문어,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을 소홀히 하여 정확한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섯째, 문법 항목이 급간 연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외에도 단원 구성이나 중급 수준의 쓰기 활동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3.2. 타 기관 중급 교재 분석 및 관련 연구물 검토

주요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이 개발한 중급 교재를 분석하였다.<sup>8)</sup> 각 기관 교재의 일반적인 분석과 해당 교재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주제와 문법 항목은 별도의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외적 구성 분석을 마친 후, 내적 구성에서는 구성 목표 및 교재 구성 원리, 단원 구성 및 학습 내용, 교재 구성표 등과 함께 개별 단원의 주제, 기능, 활동, 어휘, 문법, 발음, 문화를 분석하였다. 각 단원 분석에서는 새단어 제시, 도입,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연습, 활동, 문화 등 해당 교재의 단원의 특성에 따른 분석을 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야 할 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준비하였다. 교재 회의 전에 이러한 분석 보고서를 집필진 각자 작성하여 회의 이틀 전까지 서로 공유한 후 교재 회의를 주 1회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각자 작성한 보고서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논의할 사항으로 정리

8) 이 연구에서 진행한 타 기관 교재 분석은 고려대학교 중급 교재 <재미있는 한국어 3, 4>, 서강대학교 중급 교재 <서강한국어 3A~4B>, 서울대학교 중급 교재 <서울대 한국어 3A~4B>, 연세대학교 중급 교재 <연세 한국어 3, 4>, 이화여자대학교 중급 교재 <이화 한국어 3-1, 3-2, 4> 등이다. 자세한 서지사항은 참고 문헌 참조. 최근 개발된 교재로 모 대학의 기능별 교재가 있으나, 교재의 목적이나 구성이 동국대학교의 통합교재와 상이한 점이 많아 제외하였다.



3급 교재 구성표-기능 목록 추가				4급 교재 구성표-기능 목록 추가			
과	개역(주제)	소재역(내용)	기능	과	개역(주제)	소재역(내용)	기능
1	여행 준비	준비물	(소주제) 여행 계획 (기능) 여행의 목적과 일정 이야기하기 여행지의 특성 설명하기 행동의 진행 표현하기 날씨 사정 언급하기 여행 계획 세우기 여행 장소 추천하기 장문의 회화 표현하기 영문 표현하기 기타 표현하기 신구의 조건이 맞는 여행지와 숙소 추천하기 활동 표시하기	1	인상과 관계	인상과 관계	(소주제) 좋은 인간관계 유지할 위한 방법 (기능) 인상과 헤어질 의도와 혼자할 의도와 방문 (기능) 새 활기를 시작하는 소문과 악소문 이야기 (기능)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과 대화 후 (기능) - 만남 말하기 - 기념품 선택하기 - 만남 전하기
		취미 생활의 장단점	(소주제) 취미 생활 (기능) 취미에 대해 말하기 취미 활동 설명하기 취미 생활의 소개하기 각 취미 활동의 장단점 설명하기 (기능) 취미 활동 소개하기 (기능) 취미 활동 추천하기 (기능) 취미 생활 표현하기 (기능) 취미 생활 표현하기			2	대학 생활
2	여가	취미 생활의 장단점	(소주제) 취미 생활 (기능) 취미에 대해 말하기 취미 활동 설명하기 취미 생활의 소개하기 각 취미 활동의 장단점 설명하기 (기능) 취미 활동 소개하기 (기능) 취미 활동 추천하기 (기능) 취미 생활 표현하기 (기능) 취미 생활 표현하기	3	대중 매체	방송, 신문	(소주제) 대중매체 (기능) 방송, 신문 (기능) 인터넷, SNS (기능) TV, 라디오, SNS (기능) TV, 라디오, SNS (기능) TV, 라디오, SNS (기능) TV, 라디오, SNS (기능)
		익숙, 음악, 방송	(소주제) 익숙, 음악, 방송 (기능) 익숙, 음악, 방송 (기능) 익숙, 음악, 방송 (기능) 익숙, 음악, 방송 (기능) 익숙, 음악, 방송 (기능)	3	대중 매체	방송, 신문	(소주제) 대중매체 (기능) 방송, 신문 (기능) 인터넷, SNS (기능) TV, 라디오, SNS (기능) TV, 라디오, SNS (기능) TV, 라디오, SNS (기능)

### 3.3. 중급 새 교재 개발의 방향 및 특징

기존 교재로 운영하는 같은 프로그램에 대치하여 사용될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므로 교재 자체가 갖는 목적이나 교수요목은 기존 교재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실현하는 과정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새로 개발되는 교재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1)</sup>

#### ① 교재 개발의 목적 및 기본 원칙

한국어를 배우는 중급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국어 교재이다. 따라서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네 가지 의사소통 기능의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습과 활동을 수록한다. 특히, 중급 학습자들이 능동적이고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중급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교재를 구성한다.

#### ② 수업 진행

하루 4교시 수업을 기준으로 수업의 흐름에 따라 교수·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또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응용하고 확장하여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11) '3-1. 기존 교재의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새 교재의 구성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각각은 기존 교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것인데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후고를 기약한다.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내용을 익힐 수 있게 하는 나선형 교육 방식을 실현한다.

전체 열여섯 개의 주제로 이루어지며 각 주제별로 한 단원을 구성한다. 각 단원은 두 개의 소단원으로 세분화해 이틀에 걸쳐 교수·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첫날은 주제에 따른 '도입'과 '어휘'를 시작으로 '핵심문형', '표현', '말하기', '통합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이튿날은 '핵심문형', '표현', '말하기', '통합 활동'과 함께 '과제'로 그 단원을 마무리하게 한다. 두 개의 단원이 끝날 때마다 두 주제를 통합하여 복습하는 종합과제를 배치한다. 수업의 흐름을 도식화 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수업 진행표

일	단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1일차	1과	도입	어휘	01 핵심문형	01 표현   말하기   통합 활동
2일차		02 핵심문형	02 표현   말하기	통합 활동	과제
3일차	2과	도입	어휘	01 핵심문형	01 표현   말하기   통합 활동
4일차		02 핵심문형	02 표현   말하기	통합 활동	과제
5일차	종합 과제	관용표현	주제 활동	문화	프로젝트 수업

각 단원에서는 습관, 소식과 소문, 추억 등과 같이 중급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물론 교환과 환불, 실수와 변명 등과 같이 중급 수준에서 필요한 기능도 제시한다. 이처럼 기본적인 의사소통에서 나아가 사회적, 문화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주어진 맥락에 따라 주관성 혹은 객관성을 유지하며 표현할 수 있도록 중급 수준에 적합한 주제를 선택적으로 제시한다.

#### ③ 도입과 어휘

새 단원이 시작할 때마다 사진이나 그림 자료 및 간단한 도입 듣기를 통해 이야기함으로써 해당 단원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지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한다. 또 중급 단계에서 급격하게 확장되는 어휘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들을 선정하여 제시한다.

#### ④ '핵심문형'과 '표현'

중급 수준에서 가장 빈도 높게 사용되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법과

문형을 ‘핵심문형’으로 선정하여, 핵심문형의 의미 기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예문 및 대화문을 상황 중심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핵심문형만큼은 아니지만 중급 한국어 학습자가 알아 두어야 하는 문형 또는 어휘들은 ‘표현’으로 제시한다.

⑤ 3급 말하기

말하기는 해당 주제로 그 단원에서 학습한 목표 문형이 포함된 모범 대화를 제시한다. 우선 간단한 대화를 제시하여 대화 상황과 대화 흐름을 익히게 한 후, 중급 수준에서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하여 다양하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모범 대화를 추가로 제시한다. 주어진 대화는 문장을 그대로 외우기보다는 대화 상황 및 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게 다시 문장 및 대화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또 후반부에서는 유사한 대화 흐름이나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조금 더 확장된 대화 연습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⑥ 4급 말하기

말하기는 해당 주제로 그 단원에서 학습한 목표 문형이 포함된 모범적인 담화를 삽화와 함께 제시한다. 이를 통해 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다음으로 담화의 일부분을 교체하여 말해 보는 연습을 함으로써 목표 문형 및 표현 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담화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말하기는 문장을 그대로 외우기보다는 담화의 상황과 흐름을 이해하고 맥락에 맞는 담화를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⑦ 통합 활동

통합 활동은 의사소통의 네 가지 영역인 말하기·듣기·읽기·쓰기를 각기 분리하지 않고, 해당 소단원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에 맞게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을 적절히 배합하여 제시한다. 중급 수준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듣기나 읽기 텍스트를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이와 유사한 주제 및 틀로 말하거나 쓸 수 있도록 말하거나 쓰기 활동을 제시한다.

⑧ 과제

과제는 해당 단원의 정리 및 마무리 단계로서 그 단원의 학습 결과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한다. 단원의 주제에 따라 말하기 과제를 제시하거나, 중급 수준에 맞는 쓰기 과제를 제시한다.

⑨ 3급 종합 과제

종합과제는 관용표현, 주제 활동, 문화,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한다. 특히, 관용표현 및 주제 활동, 문화의 주제는 앞에서 제시된 두 단원과 관련된 것으로 선정한다.

- 관용 표현은 중급 단계에서 다루어야 하는 관용표현을 익힐 수 있게 한다.
- 주제 활동은 해당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주제와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문화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중급 수준에 맞는 읽기 텍스트로 제시한다. 또한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자들의 문화와 비교하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젝트 수업은 준비부터 발표까지 단계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⑩ 4급 종합 과제

종합과제는 관용표현, 주제 활동,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한다. 특히, 관용표현 및 주제 활동의 주제는 앞에서 제시된 두 단원과 관련된 것으로 선정한다.

- 관용 표현은 중급 단계에서 다루어야 하는 관용표현을 익힐 수 있게 한다.
- 주제 활동은 해당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주제와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프로젝트 수업은 토론하기, 보도하기, 연극하기, 발표하기 등인데 각 수업은 단계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구성한다.

3.4. 단원 구성

문법 항목, 주제, 기능 등의 목록 작업을 마친 후 단원 구성작업을 진행하였다. 처음 연구 단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동대 초급 교재의 틀을 바탕으로 중급 교재의 전반적인 구상은 하였으나, 교재 분석과 관련 연구물의 검토를 통해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본격적인 단원 구성 작업을 진행하였다.

수도 없이 수정되는 과정을 통해 작성된 단위 구성표는 <표 7, 8>과 같다. 이것은 최종 단위 구성표가 아니라 집필 단계 작업을 위한 단위 구성표이다. 따라서 <표 6>에 맞게 <표 7, 8>의 내용으로 집필 작업을 하였다.

표 7 3급 단위 구성표

3급 단위 구성				
2017.02.23 현재				
과	제목(주제)	소재(내용)	목표 문형 예문	문법 항목
1	여행 준비	여행 계획, 준비물 미리 정보 파악, 추천	설악산은 사계절 모두 아름답다고 합니다.	간접회법
			산에 갈까 바다에 갈까 고민 중이에요.	-(으)ㄹ까 -(으)ㄹ까 하다
			촌친은 닭갈비가 먹을 만해요.	-(으)ㄹ 만하다
2	여가	취미생활, 장단점 덕후, 음악, 방송	저는 총천기를 항상 가방에다가 넣고 다녀요.	-에다가
			저도 기타를 배워 보려던 참이었어요.	-(으)려던 참이다
			배워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아/어 보니까
			제가 음악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거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의문사 -든지	
종합과제1	관용표현	1, 2과 주제 관련 활동	문화	팀 발표①

표 8 4급 단위 구성표

4급 단위 구성					
2017. 2. 23 현재					
과	제목(주제)	소재(내용)	기능(참고항)	목표 문형 예문	문법 항목
1	만남과 관계	좋은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방법	[소주제] 만남과 헤어짐 모임문화 모임과 추천품 초대와 방문 [기능] - 새 회기를 시작하는 소감	모임에 자주 나가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돼요.	-는 데(에) -(으)ㄴ 게 잊으 제 같은데
		선호배 사이, 동료 관계, ...	- 새 회기를 시작하는 소감과 각오 말하기 -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기 - 근황 말하기 - 가족 행사 참여하기 - 안부 전하기	여자 친구를 만나더니 성격이 변했어요.	-더니 -(으)ㄴ/는 거 아 니야?
2	대학 생활	수강 신청, 동아리	[소주제] 대학 생활과 문화 동아리 [기능] - 정보 전달하기 - 정보 찾기 - 조사하기	그 수업은 인기가 많을 텐데 빨리 신청해야겠어요.	-(으)ㄴ 텐데 -에 따라서
		축제 기획		친구가 바쁜지 요즘 학교에 잘 안 와요.	-(으)ㄴ/는지 -아/어 놀다
종합과제1	관용표현	주제 관련 활동 (동아리 회원 모집)			토론①

### 3.5. 2차 집필진 연수

집필 단계에서는 3급과 4급이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므로 3, 4급 각각 2명씩 총 4명의 집필위원이 추가되어야 했다. 연구 단계에서 진행된 내용을 이해하고 집필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집필 작업에 들어가기 전 1학기(10주) 동안 ‘2차 집필진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 책임은 집필 총괄이 맡아, 매주 교재 분석 및 관련 자료를 과제로 주고 이메일로 보고서를 제출받아 피드백을 하였다.

또한 연구 단계에서 진행되는 내용도 공유하였으며 단위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 4. 집필 단계

집필 단계는 본격적인 집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표 2>의 일정에 따라 1, 2, 3차본을 집필하였다. 2017년 여름학기에 3, 4급 1차 집필을 마치고 스프링제본으로 제작하여 2017년 가을학기에 정규수업에서 시험 사용하였다. 급 회의를 통해 집필진의 브리핑과 함께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각급 온라인 교수실을 통해 수업 후기를 받았다. 시험 사용을 통해 얻은 피드백을 토대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여 2차본을 제작하였다.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2차본으로 삽화와 이미지 작업을 시작하였다. <표 9>와 같이 삽화스토리를 삽화가에게 보내 받은 삽화를 집필진이 확인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동시에 이미지를 구입하여 출판용 사진으로 교체하였다.

표 9 삽화-이미지 작업용 파일

교재	과	항목	번호	그림파일명	삽화 내용	정답번호	1차	2차	3차	발행	윤리
3급	1과(1)	핵심문형	1	3급_1과(1)_핵심_1	여행사 직원(남)과 손님(유카)이 여행할 장소에 대해서 상문	904	917	924	X	0	
3급	1과(1)	핵심문형	2	3급_1과(1)_핵심_2	지니가 <동북한> 게시판을 보고 있는 것을 떠올리면서 타	904	917	924	X	0	
3급	1과(1)	핵심문형	3	3급_1과(1)_핵심_3	지니와 타쿠야가 말리세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 타엔이 타	904	917	924	X	0	
3급	1과(1)	표현	1	3급_1과(1)_표현_1	타엔과 향호가 대화를 하는데, 향호가 결정하지 못해서 난처	904	917	924	X	0	
3급	1과(2)	핵심문형	1	3급_1과(2)_핵심_1	2급 4-20 사진 좌우 회전, 타쿠야 앞 풍선 지워주세요. (13쪽)	904	917	x	x	0	
3급	1과(2)	표현	1	3급_1과(2)_표현_1	호텔직원(여)과 손님(알렉스)가 호텔 로비 데스크에서 서유	904	917	924	x	0	
3급	1과(2)	읽기	1	3급_1과(2)_읽기_1	제주도 간단한 지도(공항 / 제주도 / 서귀포시 / 한라산)와 바	904	917	924	x	0	
3급	1과(2)	읽기	2	3급_1과(2)_읽기_2	성계 비밀법(비밀법에 성계 일이 영어가 있는 그림)	1030	1105		x	0	
3급	2과(1)	어휘	1	3급_2과(1)_어휘_1	취미 생활 중 피큐어를 만나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27쪽)	904	917	924	x	0	
3급	2과(1)	어휘	2	3급_2과(1)_어휘_2	왕호가 가라를 찾고 있고, 그 옆이나 앞에 선생님이 있는 모	904	917	X	x	0	

  

교재	과	항목	번호	사진 번호	집필진	활영 (장소, 인원, 내용 기록)
3급	1과(1)	도비라	1	23451820		
3급	1과(1)	도입	1	41730586		
3급	1과(1)	듣기	1	4288988		
3급	1과(2)	활동	1	41491545		
3급	2과(1)	도입	1	38685405		
3급	2과(1)	듣기	1	21168518		삽화가 있지만 사진과 비교해서 더 나은 걸 사용
3급	종합과제1	문화	3			한글로 된 적절한 POP 글씨가 없어서 촬영 필요
3급	종합과제1	팀 발표	1			서훈, 통인시장 촬영 필요
3급	종합과제1	팀 발표	2	24582191		
3급	종합과제1	팀 발표	3	39071938		

집필 단계 마지막 학기에 삽화 제작과 이미지 작업을 마친 후 3차본을 제작하여 최종 원고와 함께 삽화 목록, 이미지 목록, 어휘 목록 등을 출판부로 보내는 것으로 집필 단계를 마무리 지었다.

### 5. 출판 단계

출판 단계는 교재 개발의 마지막 단계로서 출판본 교정 및 앞부속과 뒷부속 집필, 표지 제작, 듣기 지문 녹음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집필 단계에서 3급과 4급을 분리하여 진행한 것과 달리 출판 단계에서는 3, 4급 작업을 통합하여 같이 진행하였다. 정규과정에서 3차본으로 시험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3차본 시험 사용의 피드백을 출판 작업에 반영하였고 <표 10, 11>과 같이 최종 교재 구성표가 완성되었다.<sup>12)</sup>

12) 지면 부족으로 인해 3,4급의 전체 교재 구성표를 실는 대신에 첫 주 20시간에 해당하는 분량만 제시한다.

표 10 3급 교재 구성표

단원	주제	소단원	제목	도입	어휘	핵심 문형	표현	말하기	통합 활동	활동
1	여행 준비	01	설악산은 사계절 모두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행에 대한 이야기	여행 관련 어휘	간접 화법 ④	-(으)르 까 - (으)르 까 하 다	여행지에 대해 인터뷰하기	라디오에 나온 고민 이야기 듣고 글 쓰기	여행사와 손님이 되어 여행 상품에 대해 이야기하기
		02	산 지오래 됐지만 아직 쓸 만해요.			-(으)르 만하다	-에다가 ①	여행 준비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여행 후기 블로그 읽고 여행에 필요한 정보 이야기하기	
2	여가	01	안 그래도 운동 배워 보려던 참이었어요.	여러 취미 생활에 대한 이야기	여가 관련 어휘	-(으)려던 참이다	-아/어 보니까	친구에게 요즘 배우는 운동 소개하기	특별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이야기하기	동호회 안 내 문 만들기
		02	제가 노래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거든요 Tip. 맞장구 표현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고민 이야기하기	여가 시간에 하는 취미 활동에 대한 글 읽고 같은 주제로 글 쓰기	Tip. -(으)르/는/(으)르 점
			관용표현	주제 활동	문화	팀 발표①				
종합과제1			눈에 선하다, 머리가 가볍다, 머리를 식히다, 바가지를 쓰다, 세상이 참 좋다	여행 보드게임	한글과 여가 생활	팀별로 소개할 곳을 사전 조사하고 직접 방문한 후 정리하여 발표해 보기				

표 11 4급 교재 구성표

단원	주제	소단원	제목	도입	어휘	핵심 문형	표현	말하기	통합 활동	활동
1	만남과 관계	01	여자 친구를 만나더니 성격이 많이 밝아졌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친구와 인사는 어떻게 하냐?	모임 관련 어휘	-더니	-(으)ㄴ게 옛그제 같은데	근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학교 친구와의 대화 듣고 새 학기 계획 이야기하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글 쓰기
		02	모임에 자주 나가면 친구를 사귀는 데에 큰 도움이 돼.	대학 생활 중에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거냐?	대학 생활 관련 어휘	-는 데에	-(으)ㄴ/는 거 아니야?	모임에 대해 이야기하기	동창회에 대한 안내 글과 채팅방 메시지 읽고 자주 가는 모임 소개하기 Tip. -(기)를 바라다	대학 교시간표 짜기
2	대학 생활	01	대학교 강의는 어려운데 제가 수업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학 생활 중에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거냐?	대학 생활 관련 어휘	-(으)ㄴ데	-에 따라서	대학 생활에 대한 고민 이야기하기	대학교 라디오 방송 듣고, 인터넷 게시판에 고민 쓰고 댓글 달기	대학 교시간표 짜기
		02	지니 씨가 어디가 아픈지 오늘 학교에 안 왔어요.	대학 생활 중에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거냐?	대학 생활 관련 어휘	-(으)ㄴ-지/는지②	-아 / 어 놓다	연락이 안 되는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강의 계획서 읽고 듣고 싶은 수업 선택하기 Tip. -(으)ㄴ	대학 교시간표 짜기
종합과제1		관용표현		주제 활동		토론①				
		둘도 없다, 등을 돌리다, 마음이 통하다, 바람을 피우다, 발이 넓다, 손발이 맞다		대학 축제 기획하기		토론의 형식을 익혀 직접 토론해 보기				

연구 단계에서 세운 기준을 토대로 집필 단계를 진행하였고 시험 사용을 통해 보완된 원고는 마지막 출판 단계에서 3,4급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교정 작업을 통해 완성되었으며, 예정대로 2018년 2월 말에 ‘함께 배워요 한국어 3A, 3B, 4A, 4B’가 출간되어 교재 개발 작업이 종료되었다.

## 6. 결론

한국어교육 현장에서의 핵심은 교사, 학습자, 그리고 교재이다. 넓은 의미

로는 수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를 교재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교재라고 하면 해당 기관에서 주교재로 사용되는 통합 교재를 말한다. 처음에는 타 기관 교재를 사용하다가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해당 기관의 교육철학을 토대로 교재 개발을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교재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현장의 교육 상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제 막 교재 개발을 시작하려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개정판을 준비하는 기관도 있을 것이다. 동국대학교에서도 기존 중급 교재의 내용 대부분을 수정하여 새롭게 중급 교재를 출간하였다. 그 중급 교재 개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재 개발의 절차를 작업 내용의 성격과 해당 단계의 결과물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 단계 → 집필 단계 → 출판 단계’로 진행하였다. 연구 단계에서는 기존 교재의 문제점과 타 기관 중급 교재를 분석하면서 새 교재 개발 방향을 논의하였다. 기존 교재 분석 과정을 거쳐 문법 항목과 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문법 항목은 6종 교재에 제시된 횟수, 문법의 중요도, 난이도, 학습 시간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주제는 개별 교재의 주제와 기존 동대 교재의 주제를 기입하고 이들을 아우르는 대표 주제로 묶어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 선정하였다. 또한 각 주제와 어울리는 기능도 정리하여 교재 구성에 참고하였다.

집필 단계는 본격적인 집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3학기에 걸쳐 1, 2, 3차본을 집필하였다. 1차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후기를 통해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여 2차본을 제작하였다. 2차본은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삽화와 이미지 작업을 병행하였다. 전체 구성이 완료된 3차본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후 집필 단계를 마무리하였다.

출판 단계는 교재 개발의 마지막 단계로서 출판본 교정 및 앞부속과 뒷부속 집필, 표지 제작, 듣기 지문 녹음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정규과정에서 3차본으로 시험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3차본 시험 사용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출판 작업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예정대로 2018년 2월 말에 ‘함께 배워요 한국어 3A, 3B, 4A, 4B’가 출간되어 교재 개발 작

업이 종료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재 개발에 참고가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론적 접근보다는 실제로 교재 개발이 이루어지는 각 단계의 작업 상황을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교육 기관에서의 교재 개발 작업은 여러 전문가들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고 시험 사용을 통해 다시 또 다듬어 지게 된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집필위원 간의 소통, 해당 기관에서 수업하는 동료 교원 간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교재 개발 과정의 실재를 상세히 보이는 것이 현재 교재 개발 중에 있거나 교재 개발 계획 중에 있는 연구자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개별 단원의 상세 소개와 이들 항목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은 지면 상 후고를 기약한다.

##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Textbook  
- Focusing on the Intermediate Textbook of Dongguk University -

Choi, Eunkyung & Lee, Inhee & Kim, Jinyoung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y sharing a case study of the textbook development process, to make it a helpful reference to other Korean education institutions or researchers that are just beginning to develop textbooks. Korean language textbooks are generally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of learners who want to learn Korean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education field. Considering the fact that,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system,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textbooks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institutes affiliated with universities are large and the textbooks can only be revised every several years, it seems clear that the experience and know-how of major Korean institutions' textbook development will be a good reference for those of other institutions. Dongguk University revised most of the contents of its existing intermediate textbooks and published new ones. The process of developing textbooks proceeded from 'research stage → writing stage → publication stage' according to the nature and results of each work to be done in the overall process. The study was started with the intention of sharing the process of developing Korean language textbooks that reflects the educational situations of the field. Therefore, rather than theoretical approaches, we tried to show all the workflow of each stage in which the textbook development work was actually conducted.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the researchers who want to develop Korean textbooks.

**Key words:** Korean Language Textbooks, Textbook Developm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Intermediate Textbooks, Research Stage, Writing Stage, Publication Stage

## 참고문헌

### □ 단행본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3』, 교보문고, 2010.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4』, 교보문고, 2010.  
 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 『함께 배워요 한국어 3』,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 『함께 배워요 한국어 4』,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 『함께 배워요 한국어 3A, 3B』,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8.  
 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 『함께 배워요 한국어 4A, 4B』,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8.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 한국어 3A, 3B』,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2008.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 한국어 4A, 4B』,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2008.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대 한국어 한국어 3A, 3B』, 투판즈, 2015.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대 한국어 한국어 4A, 4B』, 투판즈, 2015.  
 서중학·이미향, 『한국어 교재론』, 태학사, 2007.  
 서중학·이미향·박진옥, 『한국어 교재론』, 한국문화사, 201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 3』, 연세대학교출판부, 201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 4』, 연세대학교출판부, 2013.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 한국어 3-1, 3-2』, Epress, 2011.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 한국어 4』, Epress, 2011.

### □ 논문

- 강승혜,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학습자를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00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3, 251-286면.  
 박지영, 「고급 한국어 교재 개발의 실제: ‘연세 한국어5’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8, 261-298면.  
 김성주, 「터키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KORECE 1:2:3」, 『동악어문학』 50, 동악어문학회, 2008, 69-97면.  
 김수미·방선영·김보경, 「중급 듣기 교재의 구성 원리와 실제: 연세대 중급 I 듣기 교재의 개발에 관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8, 329-357면.  
 김정숙·이준호·장미라, 「"세종학당용 초급 한국어 표준교재" 개발을 위한 교수요목 설계

-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2011, 19-43면.  
 김종섭, 「한국어 교재 개발의 이론과 실제」, 인문과학논집 12,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235-246면.  
 김종섭 외,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2010.  
 김종섭 외,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2011.  
 김종섭 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2017.  
 김지영·김정숙,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쓰기 교재 개발 원리에 의한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58, 이중언어학회, 2015, 1-31면.  
 김진영, 「교사의 피드백 유형이 한국어 문법 항목의 오류 감소에 미치는 영향: ‘-아/어 있-’과 ‘-고 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4.08. 1-76면.  
 김훈태, 「루마니아어 모어 화자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일반인과 초급단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주어문』 38, 영주어문학회, 2018, 211-246면.  
 박선옥, 「한국어 교재 개발의 실제: 가톨릭대 한국어교육센터 초급 교재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30,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11, 137-169면.  
 박지영, 「교재 분석을 통한 전공 기초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한국어학』 75, 한국어학회, 2017, 129-160면.  
 안주호·투부르바트 톱스비야르, 「몽골 현지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동악어문학』 68, 동악어문학회, 2016, 253-277면.  
 우인혜·방성원, 「국의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몽골 현지 한국어 교재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6-2, 국제비교한국학회, 2008, 373-416면.  
 이인희,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법적 언어 연구」, 『인문과학연구』 22, 동덕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15-33면.  
 이인희,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종결어미 ‘-지’ 활용 양상 연구」, 『인문과학연구』 23, 동덕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1-17면.  
 이정란 외, 「한국어교육 실습 기관 기초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2016.  
 이정희, 「기능 심화형 한국어 교재 개발의 실제: 「경희 한국어 읽기」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6, 193-228면.  
 이지영, 「한국어 교재 구성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5-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195-223면.  
 이해영 외, 「한국어 교재 사용 현황 조사 및 교재 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국립국어원, 2017, 1-197면.  
 이해영·박선희·최은지, 「"세종학당용 초급 한국어 표준교재"의 단원모형 개발 연구」,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2011, 321-345면.

- 조향록, 「한국어 교재 개발의 기본 원리와 실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 개발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3, 223-250면.
- 최권진, 「라트비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의 실제: 초급 교재 `Korejiesu valoda 1, 2` 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17, 117-144면.
- 최윤곤, 「중국어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정독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3-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257-270면.
- 최은경, 「한국어 교육을 위한 준말 종결형식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11.08. 1-339면.
- 최은경, 「한국어 교육에서 구어의 중요성」, 『한국어문학연구』 60,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3, 395-420면.
- 최은경, 「한국어 교육을 위한 듯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0-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3, 207-228면.
- 최은경, 「한국어 교육을 위한 준말 연결형식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63,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4, 559-583면.
- 최은경 외,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통합교재 단위구성 전략 분석」, 『국제언어문학』 32, 국제언어문화학회, 2015, 203-229면.
- 최은경, 「간접 인용 표현의 제시 양상」, 『국제언어문학』 35, 국제언어문화학회, 2016, 179-205면.
- 한송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3, 331-362면.
- 황인교, 「초급 한국어 교재 개발의 실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정규 과정 새 교재 ‘한국어1’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0,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5, 265-309면.

이 논문은 2018년 11월 14일 접수되어 12월 11일까지 심사받아 12월 17일 게재 확정됨.